

# 지체의 말씀

불기 2563년 2월 / 통권 456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證道歌(증도가)

아 금 해 차 여 의 주  
我今解此如意珠하니

자 리 이 타 종 불 갈  
自利利他終不竭이라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자신도 이롭하고 남도 이롭게 해서 끝이 나지 않는다.

강 월 조 송 풍 취  
江月照松風吹하니

영 야 청 소 하 소 위  
永夜清霄何所爲아?

강에는 달 비추고 소나무에는 바람이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엇을 하겠는가?

#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안거에 대하여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1

알림마당 · 13

대광사 2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2월 활동  
기해년 정초기도 안내  
정초 삼사순례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안거에 대하여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지난 호에서는 두타행이라는 수행방법에 대하여, 이번에는 우리 불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안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안거’란 비가 오는 석 달 동안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에 매진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안거에 관한 승가의 규칙들을 율장에 따라 실시된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우기인 석 달 동안 출가인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한곳에 모여지내면서 수행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본래 이 기간에 밖으로 나가면 지면의 벌레 또는 나무나 풀의 싹을 밟아 죽여서 세간에 비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여서 수행하고 외출을 삼간 것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우기인 하안거만을 실시하였으나 불법이 여러 곳으로 전파 되면서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동안거를 실시 하기도 하여 일 년에 두 번 안거를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안거 동안거 두 번의 안거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안거에 관한 규칙이나 여기 따른 여러가지 말이 있으나, 안거는 삼 개월 즉 90일 동안 탁발이나 기타의 외출을 삼가고 집중 수행을 하

는 기간이다.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  
 지만 하루에 한 시간씩 일 년을 공부하는 것 보다 하루에 열 시간  
 씩 한 달을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공부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  
 다. 물론 온전히 공부와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그렇다  
 는 것이다. 고봉 스님의 『선요』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무리 둔한 근기의 소유자라도 삼 개월이면 충분히 깨달음을 얻  
 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행제도가 안거인 것이다. 삼 개월  
 동안 탁발 등의 공양 할수 없으니, 자연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공양물을 밖에서 제공하여 수행정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양  
 을 올린다. 그러나 당나라 시절 백장스님의 백장청규에 따르면, 모  
 든 선원의 생활을 밖의 공양에 의존하지 않고 선원 안에서 대종 스  
 님들이 경작을 하여 모든 일을 절 안에서 해결한 예도 있다. 그렇  
 다고 전적으로 공양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 사찰에서도 매년 여름에는 불국사 선원에, 겨울에는 송광  
 사 선원으로 대중공양을 올리곤 한다. 어제 25일 송광사 대중공  
 양을 다녀왔다.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은 소임을 사  
 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의무이다. 비록 찬바람불고 추운 날씨 였지  
 만, 선원 울원 강원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대중공양에 참여하신 모든 신도들의 추위나 불  
 편함 좁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공양의 공덕이 더 뜨  
 겹게 회양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송광사 주지 스님께서서 지난 일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 하셨다. 나 또한 돌아보니 그런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다. 그러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일이 기도라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몸도 마음도 그리 녹녹치 않은 시간을 보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자비도량참법기도를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올렸다. 그리 기도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기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도가 된 것 같다. 무술년을 보내고 기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들의 가슴에 밑바닥에 남아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행복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 깨달음으로 가는길 \_

우리는 반가운 이, 그리운 이를 만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禮)로써 감사하고 반갑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한다. 불자들은 스님이나 법우를 만나면 합장으로 예를 표한다. 열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양 손바닥을 맞대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 다소곳이 고개 숙여 합장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 큰절이 아니라도 합장은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의 진리위에서 서로 만났음을 뜻한다. 동시에 존경과 진실과 자비의 마음을 뜻한다.

절을 하고 합장하는 마음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매일 108배를 하면, 항상 교만심을 버리고 하심하여 성내지 않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된다. 공양 전후에 항상 합장하며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의 공덕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거나 “나무아미타불” 하고 읊조릴 때 자신을 있게 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어찌 감히 다른 이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불공을 할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며,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시다. 또한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는 뜻도 담고 있기에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



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 세상을 더욱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자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머리를 숙여 합장하고, 공양을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을 부처님 공경하듯이 받드는 자세, 이러한 자세가 몸 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합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마른 풀이 수미산 같이 쌓여 있어도 겨자씨만한 불씨 하나로 다 태울수 있듯이, 우리들의 조그마한 신행의 불씨가 나와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태우고, 마침내 마음을 밝혀 깨달음을 이루어 불국 정토세계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아  
 수행의 보람을 얻기 어렵네

「법구경」 「제1 쌍서품(雙敍品)」

## 부처님의 생애

### 1. 시대적 배경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큰 변혁기에 있었다. 원래 피부색이 검고 코가 낮은 원주민들이 지금으로부터 6,000여 년전에 이미 인도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것이 세계 4대



문명중의 하나인 인더스문명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인 기원전 15세기경에 피부색이 희고 코가 높은 인종인 아리아인들이 침입해 들어오고부터는 이들이 인도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처음에 인더스 강 유역에 정착했던 아리아인들은 차츰 동쪽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 갠지스 강 상류 지역에 작은 촌락을 형성하고 목축과 농경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은 태양·번개·바람·물·산 등 모든 자연현상을 신격화하여 그 신들을 찬미하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생활을 하였다. 이들 모든 신들은 원리적으로 브라만신에 통합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베다라는 성전을 받들고 있었는데, 이 종교를 바라문교(婆羅門敎)라 한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히 신과 인간을 중개해 주고 제사와 같은 종교의례)를 전문적으로 맡은 바라문이라는 사제계급(司祭階級)이 부상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른바 사성계급(四姓階級)이라는 독특한 계급제도를 형성해 갔다. 사성은 사제계급인 바라문을 정점으로 왕족·평민·노예 등의 네 계급을 수직적으로 나눈 것이다. 각 계급은 세습되었고 직업도 계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결혼도 같은 계급끼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엄격한 신분제도였다.

부처님이 탄생할 무렵에 이러한 바라문 중심의 전통사회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변동은 아리아인들이 비옥한 갠지스 강 중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곳곳에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군소부족이 통합되어 강대한 국가 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는 16국의 큰 나라가 있었다. 이들 대국에는 왕권이 신장되어 왕족계급이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였다. 또 경제적으로도 도시가 발달하자 상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져서 자본가들도 새로운 실력자가 되었다.

이들 상공업자들은 조합을 형성해서 도시 안의 경제권을 장악해 나갔는데, 경전에 많이 언급되는 '장자(長者)들은 이들



이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 국왕과 자산가들이 큰 세력을 가지게 되자,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던 사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사성계급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상적으로도 큰 변혁기에 있었다.

도시가 건설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사회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전통적인 바라문교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여기저기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들 새로운 사상가들은 출가하여 유행(流行)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통틀어 사문(沙門)이라고 불렀다. 이들 사문들의 집단이 불교 경전의 자료에 의하면 62종이나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당시는 다양한 사상이 꽃피는 시대였다.

그중 대표적인 6인의 사상을 경전에서는 육사외도(六師外道)라 부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만물이 브라만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바라문교의 전변설(轉變說)로 일컬어지는 입장에 반대하여, 만물과 인간은 지(地)·수(水)·화(化)·풍(風) 등 실재하는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는 적취설(積聚說)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 사문들은 선악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각기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선악의 행위는 도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도덕부정론자도 있었고, 인간의 삶은 단지 과거의 업에 따라 정해진 대로 운명이 풀려갈 뿐이라는宿命론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감각적 쾌락만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도 있었고, 일체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불가지론(不可知論)자도 있었다. 또 자이나교처럼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업의 속박을 끊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 자이나교들은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극단적인 고행을 하였다.



##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 6. 정의로운 삶의 경

1. [부처님]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라고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3. 논쟁을 즐기는 수행승은 우매한 성품으로 덮여 있어 깨달은 남에게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4.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번뇌를 알지 못한다.
5. 참으로 이러한 수행승은 타락한 곳에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6.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사람은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7.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들은, 사실은 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의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8.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싹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 버려라.
9.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싹겨들을 날려 버려라.
10.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마음챙김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서로 화합하여 사려 깊게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 2월 2일 : 입춘 및 삼재소멸 기도(소.닭.뱀) 오전10시30분 설법전
  - ◆ 2월 5일 : 설날합동다례(오전7시 설법전)
  - ◆ 2월 7일 : 정초기도 입재(오전10시 설법전)
  - ◆ 2월 11일 : 정초기도 회향(오전10시 설법전)
  - ◆ 2월 12일 : 삼사순례(통도사.해인사.송광사) 동참금 5만원
  - ◆ 2월 19일 : 음력1월 정월대보름 법회(동안거 해제)
  - ◆ 2월 26일 : 신도기본교육(오전10시~12시 불대강의실)
  - ◆ 2월 28일 : 관음재일 다라니도(저녁6시30분 대웅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기해년 정초기도 안내

- 일 시 : 2월 7~11일(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 입춘 및 삼재소멸기도(소.닭.뱀)

- 일 시 : 2월 2일(오전10시30분)
- 동참금 : 입춘(3만원) 삼재소멸(1인당 2만원)

### 정초 삼사순례

- 일 시 : 2월 12일(화)오전 7시
- 동참금 : 5만원
- 삼사 일정 : 통도사-해인사-송광사



## 고맙습니다

### 대광 후원회

(2019년부터는 급식소 후원금과 군법당 지원금을 같이 게시합니다.)

홍승운 40,000	천병순 100,000	허점자 10,000	이봉숙 40,000
법안성 30,000	박미애 10,000	유봉악 10,000	하형규 10,000
황두관 20,000	정연수 30,000	금강지 20,000	강 란 10,000
김성호 50,000	정대식 20,000	홍예현 60,000	후원회 100,000
김보영 50,000	오미라 40,000	찬불단 50,000	유미란 50,000
김승호 10,000	조성부 100,000	윤숙희 10,000	강건숙 60,000
(주)카텍 300,000	김지현 100,000	이현실 30,000	이지은 60,000
원광한의원 100,000	김성욱 30,000	김성욱3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초하루기도 공양

정호철 100,000

#### ♥ 자비도량참법 공양

이미정 최덕희 박종수 한지민 김경남

정순자 대명화 이상현



## ❁ 2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

### 1. 제 35회 2018학년도 수료식

○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 2. 제 35회 2018학년도 졸업식

○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전10시



**진해대광사 찬불단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매주 목요일
- 찬불단: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佛紀 2563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 제18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살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신도기본교육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19. 2. 26 ~ 3. 20	2019. 3. 26(화)~12. 3(화)
수 계 일	2019년 3월 24일(일)	( 1년 과정 - 2학기제 )

- ▶교육일시 : 신도기본교육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불교대학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부터 ~ 2019년 2월 말까지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신청 준비물 : 사진3장, 신청서 작성, 신도기본교육비 5만원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